

집단 내 대화의 경험 및 효과에 대한 혼합연구: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시스젠더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남 혜 라	최 수 정	안 진 아	정 지 선 [†]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박사과정	부교수	조교수

본 연구는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편견, 특권, 차별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인 집단 내 대화(Intragroup Dialogue [IntraGD])의 참여 경험과 효과를 한국 문화적 맥락에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스젠더인 실험집단($n=15$)은 트랜스젠더 및 젠더 논바이너리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총 7 회기에 걸쳐 IntraGD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통제집단($n=15$)은 별도의 처치를 받지 않았다. 연구는 다양성 수용도, 젠더 감수성, 상담자 옹호역량,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고,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을 활용하여 심층 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IntraGD는 다양성 수용도, 젠더 감수성, 상담자 옹호역량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공감 능력의 인지적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분석에서는 참여자들이 자기 성찰과 타인 조망을 통해 편견과 특권을 자각하고, 소수자 옹호 의식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IntraGD가 단독으로도 한국적 맥락에서 상담자 옹호역량 증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동시에 InterGD의 준비 단계로서도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 후속 연구 방향을 논의하며, 다양성 교육 및 상담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집단 내 대화, 다양성, 시스젠더, TGNB, 상담자 옹호역량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25년 정부재원(교육부 4단계 BK21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교신저자 : 정지선,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2 제2교수연구동 410호, Tel: 051-510-2635, E-mail: stopline@pusan.ac.kr



Copyright ©2025,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와 젠더 논바이너리(Transgender and Gender Non-Binary [TGNB])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성별, 계급, 연령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 논바이너리(Non-binary), 젠더 플루이드(Genderfluid) 등 TGNB는 기존의 이분법적 성별 체계를 재구성하고 확장하는 존재로서, 사회 전반에서 편견과 차별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윤효정 외, 2023). 반면, 시스젠더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는 개인(예,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되고 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을 지칭한다. 시스젠더는 상대적으로 사회 전반에서 주류 규범을 형성하고, 이분법적 성별 체계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는 구조에서 특권을 누린다. TGNB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일상생활 차원뿐만 아니라 제도적·구조적 수준(예,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에서도 드러나며, 상담 현장에서도 TGNB에 대한 지식과 문화적 역량이 부족한 상담자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이주영 외, 2020).

한국에서 활동하는 상담자들은 TGNB에 대해 여전히 제한된 인식을 보이며, 이를 둘러싼 차별적·편견적 태도가 남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이주영 외(2020)는 한국 상담자 12명을 대상으로 질적 면담을 실시한 연구에서, 상담자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고,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상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유하은과 권경인(2020)의 연구에서도 상담자가 성소수자 내

담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낮습과 개인적 이해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가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가질 경우 상담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서영석 외, 2007), 특히 불편한 감정은 공감 반응을 지연시키고 내담자 탐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박정은, 2013).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다문화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되고 있다(김은하 외, 2019; 정지선, 2020). 다문화 상담 교육을 받은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이 인식과 지식 측면에서는 발전을 경험하지만, 실제 상담 개입 역량은 아직 미흡하다는 보고가 있으며(남목민 외, 2023), 수련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상담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슈퍼비전 방안을 제안한 연구도 나타났다(임은미, 2020). 아울러 이러한 다문화 상담 슈퍼비전이 실제로 상담자의 다문화 역량 증진에 기여한다는 결과가 제시되면서(정지영, 임은미, 2021), 상담 현장에서 다양성 관련 교육과 훈련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김은하 외, 2019; 정지선 외, 2023; 최가희, 2018).

다양성 교육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이 주로 강의식, 지식 전달 위주의 일방향적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학생들의 실제 삶과 연결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식 중심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의 다양성 수용성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이 보고되었다(은지용, 이윤정, 2021). 반면, 대화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활용한 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고, 사회적 맥락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이해하며, 이와 관련

된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정지선, 안진아, 2023). 따라서 TGNB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편견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상담자의 다문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참여형 교육·훈련 방법론으로 대화(dialogue)가 효과적인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화는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타인의 경험과 감정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억압받은 집단과 특권을 가진 집단이 서로의 관점을 나누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을 통해 편견을 줄이고 관계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Bingham et al., 2002). 예를 들어, 미국의 인종적 화해를 목표로 발족된 위원회에서도 인종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President's Initiative on Race, 1998). 지금까지 다양한 대화의 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나 경험적으로 지지되는 방법으로는 집단 간 대화(Intergroup Dialogue [InterGD])가 있다. InterGD는 역사적으로 억압받은 집단과 특권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들이 소규모로 만나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을 포함하여 집단원들의 삶 속에서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특권과 억압을 함께 탐구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Zúñiga et al., 2002). 이 과정에서 대화는 논쟁이나 설득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전략으로 활용된다(Bohm, 1996). 집단 참여자들은 InterGD 집단 안에서 대인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진 집단원의 실제 경험을 들으며 편견을 줄이는 경험을 하게 되고, 차별과 억압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억압이라는 비판적 이해를

키우며, 나아가 사회적 변화를 위한 실천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Zúñiga, 2007).

인종, 성별, 사회적 계층,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대화에서 InterGD의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 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InterGD 관련 실증 연구를 종합한 결과(Frantell et al., 2019), InterGD가 참여자의 태도 변화, 공감 능력 향상, 비판적 의식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nterGD는 갈등 완화와 상호 이해에 효과적임에도 몇 가지 한계가 제기된다. 먼저, 대부분의 효과성 연구가 자발적 참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화 상황에서 특권 집단은 불안과 방어적 태도, 정치적 올바름 등으로 대화를 회피하기 쉽다(DiAngelo, 2022; Sue, 2013), 소수자가 다수자를 ‘교육’해야 하는 부담이나, 다수자가 소수자를 배제하는 역동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Dessel et al., 2006; Gurin et al., 2013). 한국처럼 권력 거리가 높고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권에서는 InterGD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표면화되기조차 어려운 측면이 지적된다(Chang, 2010; Dai et al., 2022). 따라서 집단 내 대화(Intragroup Dialogue [IntraGD])를 먼저 적용해 다수자 내부의 편견과 특권을 성찰하고 대화 역량을 강화한 뒤, InterGD로 연결하는 전략이 제안된다(Tittler & Wade, 2019).

IntraGD는 동일한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경험과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된 접근법이다. 초기에는 InterGD에 앞서 동질적 집단끼리 대화를 진행하는 보조적 도구로 제안되었으나(Maxwell & Chesler, 2019; Rothman, 2014), 이후 독립적인 대화 방식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감한 주제나 억압적 경험을 다루는 경우,

IntraGD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자기 정체성과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Sanders & Mahalingam, 2012). 이러한 특성은 IntraGD가 InterGD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판적 의식과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준비 단계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IntraGD 참여자들은 내집단에서 공유되는 경험과 도전에 공감함으로써 연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외집단과의 대화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InterGD와 IntraGD는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Turner et al., 1979),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 Allport, 1954), 그리고 비판적 대화 접근법(Critical-Dialogic approach; Gurin et al., 2013; Nagda & Gurin, 2013)에서 비롯된 공통된 이론적 기반을 갖는다. 원래 InterGD는 상이한 집단 간에 존재하는 편견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동등한 지위, 공유된 목표, 협력적 관계, 권위의 지지 등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도록 대화를 설계해 왔다(Zúñiga, 2007). 이는 서로 다른 사회 정체성을 지닌 집단이 긍정적인 접촉을 통해 상호 이해와 편견 감소를 경험하게끔 유도한다는 취지(Turner et al. 1979)와 부합한다. 반면 IntraGD에서는 상이한 집단 간의 직접 접촉이 없지만, 참여자의 상호교차성을 고려하면 동일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접촉으로 간주될 수 있다(Dovidio et al., 2003). 즉, 같은 정체성 안에서도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류 내러티브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접촉 가설이 작동하며, 비판적-대화적 모델(Gurin et al., 2013; Nagda & Gurin, 2013)을 적용해 권력 불균형과 구조적 억압을 함께 성찰한다(Schmidt et al., 2020)는 점에서 IntraGD와

InterGD 모두 공통된 이론적 배경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두 대화 방식이 학습 목표와 학습 결과 면에서 나타내는 공통점도 주목할 만하다(Ford, 2012). InterGD는 집단 간 연대와 사회 정의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높이고 상호작용을 심화하도록 고안되었다(Dessel & Rogge, 2008; Frantell et al., 2018; Zúñiga, 2007). IntraGD 또한 동일 집단 내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 배경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화된 편견이나 특권의식을 인식함으로써 변화를 도모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학습 효과를 발휘한다(Joslin et al., 2016; Madden, 2015; Sanders & Mahalingam, 2012). 예컨대, 백인끼리의 IntraGD를 통해 백인성(Whiteness)과 인종적 특권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불평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학습했다는 보고가 이를 뒷받침한다(Crider, 2015; Tatum, 2003). 소수자 역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주류 내러티브(master narratives)에 대항하는 대안 내러티브(counter narratives)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감정적·인지적 학습이 통합된다는 점에서 높은 교육적 효과를 낳는다(Ford, 2012). 즉, IntraGD가 개개인의 내부적 성찰과 특정 집단의 정체성 이해에 집중해 내적 변화를 이끈다면, InterGD는 서로 다른 집단 간 관계 형성을 통해 상호작용의 확장 및 다른 집단의 가치와 시각을 폭넓게 수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Crider, 2015).

IntraGD는 InterGD와 이론적 배경과 학습 결과를 공유하고 있지만, 고유한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로, IntraGD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외집단의 시선이나 평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백인 IntraGD에서는 참가자들이 유색인종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백인성(Whiteness)’과 ‘백인 특권(White privilege)’을 더욱 심층적으로 성찰할 수 있었다(Tatum, 2003). 이는 참가자들에게 기존의 편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Crider, 2015). 이처럼 안전한 환경을 통해 참여자들은 정체성에 대한 내면적 저항을 탐색하면서, 자신의 인식 및 태도를 재구조화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Tatum, 2003). 또한,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다수자 집단이 소수자 앞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의식하거나 죄책감·불안을 느껴 발언을 자제하는 문제를 완화한다. 이는 IntraGD가 추후 InterGD에 참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수자의 ‘침묵’이나 소수자에게 ‘교육자 역할’을 강요하는 역동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DiAngelo, 2022; James-Gallaway & James-Gallaway, 2023; Sue, 2013).

둘째, IntraGD는 내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주류 내러티브와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재평가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컨대, 이스라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IntraGD 연구에서, 외집단(팔레스타인)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과 편견이 완화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Staub, 2013; Sternberg et al., 2018). 이는 갈등과 폭력을 정당화해 온 문화적 기제를 성찰하고, 갈등 상황을 더 복합적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내면적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편, IntraGD는 소수자 집단에게도 안전한 ‘목소리 내기’ 기회를

제공한다. 소수자 구성원은 다수자와 혼재된 공간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나 “대표자처럼 말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경험을 내집단 안에서 먼저 공유하고 의미화할 수 있다(Dessel et al., 2006; Gurin et al., 2013).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수자들은 기존 주류 내러티브(master narratives)에 대항하는 대안 내러티브(counter narratives)를 구축하고 강화하며, InterGD 참여 시에도 더욱 주체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Crider, 2015).

IntraGD는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으나 부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이를 “분리주의적(segregated) 모임”이나 “제도적 인종 분리의 승인”으로 오해할 수 있다(Tatum, 2019). 또한, IntraGD의 주요 초점이 주로 다수자 정체성과 특권 이해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집단 간 역학과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측면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Crider, 2015). 따라서 IntraGD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집단의 성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외집단과의 대화와 행동으로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설계와 실행이 필요하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IntraGD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고권력 거리(high power distance) 문화권으로, 위계질서와 권위를 중시하는 특성이 두드러진다(Merkin, 2006). 이는 대화 참여자에게 지배적 집단을 비판하거나 구조적 불평등을 논의하는 데 심리적 부담을 주어, 대화 참여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Dai 외(2022)는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권력 거리 신념과 의사소통 사이의 관계를 매개해, 기존 체계에 대한 비

판적 성찰을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화권에서는 우선 IntraGD로 신뢰와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동일 집단 내에서 충분한 신뢰를 쌓으면, 이후에는 비판적 주제를 더욱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고, 이는 대화의 질을 높여 심층적 고민으로 이어지게 한다.

그러나 최근 Tittler와 Wade(2019)의 시나리오 기반 연구에서는, 인종적으로 동일한 구성원들 간 대화가 보다 솔직한 의견 개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가정이 반드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흑인·백인 간 대화와 동질적 집단 대화를 가정해 보도록 한 실험에서, Black Lives Matter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얼마나 솔직하게 발언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InterGD와 IntraGD가 모두 솔직한 대화 참여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곧 IntraGD가 이루어질 때에도 단순히 동일 집단으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솔직한 참여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대화를 설계하는 방식(예, 구조화 정도, 진행 규칙, 안전망)이 그 효과성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두 백인으로 구성된 그룹에서는 비구조적 접근법이 구조적 접근법에 비해 더 자발적이고 솔직한 반응을 유도하며, 참가자들이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특권에 대해 진정성 있는 성찰을 하도록 도왔다.

나아가 한국처럼 관계지향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권에서는, 갈등이나 민감한 주제를 완전히 자유롭게 논의하기가 쉽지 않으며(장애경 외, 2022; Chang, 2010),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대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관계지향적 문화에서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갈등을 노출하기보다 회피하거나 사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성향이 두드러진다. 예컨대 Chang(2010)은 한국 대학생들이 갈등 해결 전략으로 관계 유지를 위한 순응 또는 상대를 설득하려는 접근을 택한다고 보고했다. 유사하게 장애경 외(2022) 역시 한국 대학생들이 InterGD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 때문에 자기 개방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반구조화된 방식은 기본적인 틀과 안전망을 제공하면서도,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대화 흐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어, 심리적 안정감과 자기 성찰을 동시에 촉진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Tittler와 Wade(2019)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반구조화된 IntraGD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집단 대화 모델을 제안하고, 궁극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집단 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InterGD 연구(장애경 외, 2022)에서 제시된 성과 요인과 방해 요인을 참고하여, IntraGD가 한국적 맥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집단 경험과 효과 면에서 InterGD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IntraGD가 갖는 잠재적 기여도를 확인하고, 국내 문화적·사회적 맥락에 적합한 대화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전략을 제안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IntraGD에 참여한 실험집단에서 다양

성 수용도, 젠더 감수성, 상담자 옹호역량, 공감 능력 등에서 사전·사후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가?

둘째, IntraGD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이 경험한 참여 동기, 대화 과정에서의 촉진·방해 요인, 긍정적·부정적 정서, 변화 인식 등은 어떠한 범주로 분류되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기존 InterGD에서 밝혀진 성과 요인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실험집단 참여자들은 2022년 2학기에 B광역시 소재의 대학에서 다문화 상담 수업 참여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IntraGD에 참여한 상담 전공 대학원생이다. 통제집단은 2024년 1학기에 동일 대학에서 상담 관련 수

업에 참여한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로 다른 처치 없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수업 참여자를 활용한 편의 표집으로 이는 현장적 제한 속에서 확보 가능한 최대 인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실험집단 16명, 통제집단 17명이었으나, 참여자 중 사후검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실험집단 1명과 통제집단의 2명이 있어 이들은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는 윌콕슨 부호-순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표 1 참조). 질적분석을 위해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4주 후, 실험집단 참여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구목적과 필요성, 면접 절차 및 질문에 대해 안내하였다. 질적분석은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CQR) 방법론(Hill et al., 1997)에 따라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권장하는 8~15명의 표본 규모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면접 참여를 희망한 8명을 대상으로 IntraGD 참여 경험에 대한 온라인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중 녹음 과정의 문제로 1명의 자료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7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표 2 참조).

표 1. 양적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실험집단(<i>n</i> =16)	통제집단(<i>n</i> =17)	전체(<i>n</i> =33)
		명(%)	명(%)	명(%)
성별	남	2(12.50)	4(23.53)	6(18.18)
	여	14(87.50)	13(76.47)	27(81.82)
연령	20~29세	7(43.75)	1(5.88)	8(24.24)
	30~39세	5(31.25)	7(41.18)	12(36.36)
	40~49세	4(25.00)	8(47.06)	12(36.36)
	50세 이상	0(0.00)	1(5.88)	1(3.03)
출신 국가	한국	13(81.25)	17(100.00)	30(90.91)
	외국	3(18.75)	0(0.00)	3(9.09)

표 2. 질적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학위 과정	전공	출신 국가
A	여	28	박사과정	심리학	외국 출신
B	남	41	석사과정	교육학	한국 출신
C	여	43	박사과정	심리학	한국 출신
D	여	47	박사과정	교육학	한국 출신
E	남	34	박사과정	교육학	한국 출신
F	여	39	박사과정	교육학	한국 출신
G	여	33	박사과정	교육학	한국 출신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일반대학원 다문화 상담 강의를 기반으로 한 수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참여 설명서와 서약서를 통해 IRB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윤리 기준을 적용하였다. 강의계획서에 IntraGD 참여가 수업의 일환임을 명시하였고, 첫 회 강의에서 IntraGD와 연구 절차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IntraGD에 참여를 원치 않는 학생에게는 대안 과제를 마련하여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였다. 또한, 교과목의 담당 교수가 IntraGD를 촉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 관계나 평가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익명 방식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은 학기 종강 후 모든 평가가 마무리된 시점에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 여부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연구 설문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심층 면접 참여자에게는 상품권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측정 도구

다양성 수용도

다양성 수용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Pascarella 외(1996)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Openness to Diversity and Challenge 척도를 이효선(201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 문항은 다양성에 대한 열린 태도의 정도를 측정하며 단일요인(예, ‘나는 나와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것을 좋아한다’)으로 총 8문항이다. 척도는 6점 Likert 척도로 총점이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성 수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효선(2014)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

젠더감수성

젠더감수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령과 서은희(2020)가 개발한 젠더감수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문항은 여성혐오 6문항(예, ‘남자보다 여자가 담배 피는 것이 더 보기 싫다’), 적대적 성차별 5문항(예, ‘여자 장관이나 여성 CEO가 적은 것은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 적기 때문이다’), 온정적 성차별 6문항(예, ‘여

자가 추위하면 남자는 옷을 벗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5문항(예, ‘동성애는 일종의 정신병이므로 치료를 통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폭력 인식 6문항(예, ‘연인이 키스나 애무를 허락하는 것은 성관계도 허락한다는 뜻이다’)이며 하위요인은 5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28문항의 총점이 낮을수록 젠더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경령과 서은희(2020)의 연구에서 젠더감수성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상담자 옹호역량

상담자 옹호역량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임은미(2017)가 개발한 한국 상담자를 위한 사회정의 옹호역량 척도(SJACS-K)를 사용하였다. 척도 문항은 내담자 역량강화 7문항(예, ‘당신은 종교적 소수자인 내담자가 자신의 안녕과 발달을 가로막은 환경적 장애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내담자를 격려합니까?’), 환경 변화 필요 인식 9문항(예, ‘당신은 종교적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를 돕기 위해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상담자 사회참여 8문항(예, ‘당신은 종교적 소수자인 내담자의 문제해결과 자원확보를 위해 합법적인 사회적, 전문적 활동에 참여합니까?’)이며 하위요인은 3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24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상담자 옹호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은미(2017)의 연구에서 상담자 옹호역량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4로 나타났다.

공감

공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의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박성희(1997)가 번안한 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공감척도의 하위요인은 관점 취하기 7문항(예, ‘나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잠시나마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한다’), 상상하기 7문항(예, ‘연극이나 영화를 본 후에 내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느낀 적이 있다’), 공감적 관심 7문항(예,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따뜻한 염려의 느낌을 자주 느낀다’), 개인적 고통 7문항(예, ‘긴급 상황에 처하면 걱정과 불안을 느낀다’)이며 하위요인은 4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28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질적연구 면담 질문지

본 연구에 사용된 면담 질문지는 장애경 외(2022)의 InterGD 경험에 대한 질문지를 일부 수정하여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로 구성되었다(표 3 참조). 장애경 외(2022)와 본 연구는 공통적으로 참여 경험, 도움 요인과 방해 요인, 일상 속 변화를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만, 장애경 외(2022)는 InterGD에서 긍정적 경험을 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변화 유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IntraGD를 처음 적용한 점을 고려하여, IntraGD 운영 과정에서의 수정 및 보완점을 질문 항목으로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IntraGD의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고,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3. IntraGD 참여 경험에 대한 면담을 위한 질문

주제	질문
참여 경험	IntraGD 참여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IntraGD 참여에 도움이 된 점	집단 경험 중 의미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변화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다고 느끼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IntraGD 참여에 장벽으로 작용한 요인	집단 경험 중 집안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단에서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 어려웠나요?
IntraGD 운영 수정 · 보완할 점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IntraGD에서 보완/수정할 점은 무엇입니까? IntraGD를 다 경험한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나에게 참여팁을 나눠준다면 무엇인가요?
실천(적용)	IntraGD가 현재 내 삶에 준 영향은 무엇입니까?

IntraGD 구성과 내용

본 연구에서 실시한 IntraGD는 시스젠더와 TGNB 이슈를 다루었으며, 참여자들은 모두 시스젠더로 동일한 성별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동질 집단을 정의하는 기준은 대화 주제와 연구 참여자의 특징을 고려하는데,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TGNB 이슈를 다룰 때, 시스젠더 상담자들의 자기 성찰과 대화를 통해 편견과 특권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스젠더 정체성을 동질집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한편, 참여자 중에는 해외 출신 대학원생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동질성 축은 시스젠더 정체성이라는 점에서 IntraGD의 개념에 부합한다. 프로그램은 다문화 상담 수업의 참여 활동의 일부로 총 7회기(회기당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Zúñiga(2007)이 제안한 InterGD의 4단계(안전한 관계 형성, 공통점과

차이점 탐구, 심화된 주제 논의, 행동 계획 수립)와 동일한 기반으로 설계되었다(표 4 참조). 이 프로그램의 촉진자는 집단원들과 동일한 시스젠더 정체성을 지닌 다문화 상담 교과목의 담당 강의자이자 본 연구의 교신저자였다.

첫 번째 단계는 집단원들 간의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의 IntraGD는 수업의 일환으로 중간고사 이후부터 진행되었기에, 참여자들 간의 기본적인 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시작되었으며, 관계 형성 과정은 한 회기로 축소하여 진행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집단 규칙을 설정하고,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성찰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시스젠더라는 정체성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탐구하며, 상호교차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정체성을 중심으로 살아오며 겪은 성역할, 차별, 소외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 참여자들은 가족 내 의사결정에서

표 4. IntraGD 구성과 내용

단계	회기	주제	내용
1	1	관계형성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소개하며 가족 문화를 성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공유하며 서로 신뢰를 형성 안전한 대화를 위한 집단 규칙을 설정 자신의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탐색
		대화법	대화, 논쟁, 토론의 차이를 이해하며 효과적인 대화법을 학습
2	2	사회화	인생 그래프 활동을 통해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받았던 메시지를 성찰
		과정	Harro의 사회화 주기를 설명하며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사회화 과정을 탐구
	3	특권과	다양한 특권 관련 질문에 응답하며 특권을 시각적으로 경험
억압		특권과 억압의 경험을 현재-여기에서 나눔	
3	4	중간 점검	과정과 집단 상호작용을 평가하며 소그룹 활동을 통해 더 깊은 대화를 촉진
	5	핫토픽 1	미스 아메리카 100년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우승자에 대한 기사를 읽고 대화를 나눔
	6	핫토픽 2	트랜스젠더가 부모에게 커밍아웃한 후 가족과의 갈등과 재회 과정을 다룬 동영상 시청 후 대화를 나눔
4	7	행동계획	참여자들이 자신이 차별받았거나, 차별하거나, 침묵했던 경험을 돌이켜보며 자신의 역할을 탐색 사회적 차별을 줄이고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개인적, 집단적 실천 방안을 구체화

배제되거나 성차별적 발언을 들었던 경험을 나누며, 이를 트랜스젠더와 같은 소수자들이 겪는 사회적 소외와 연결 지어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약 3회기에 걸쳐 참여자들이 자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도록 구성되었다. 2회기에서는 대화법과 사회화 과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은 인생 그래프를 그리며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통해 사회화되었는지 탐색하였다. 3회기에서는 특권과 억압을 지금-여기에서 생생히 나누는 알사탕 활동을 통해 특권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예를 들어, “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와 같은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참여자는 알사탕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활동을 활용하여 특권의 불평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4회기는 중간 점검 회기로, 대화의 내용을 넘어 집단 상호작용과 대화 기술 사용 여부를 평가하며, 소집단 활동을 통해 더욱 친밀한 대화를 촉진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인 핫토픽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단계로, 약 2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 회기별로 설정된 주제는 신문 기사나 동영상과 같은 자료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제공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사전 숙고 과정을 거쳐 자신의 개인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분법적 성별 사고방식의 일상

성과 무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형성되었으며, 한 참여자는 “만약 나의 자녀가 TGNB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져 집단원들이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화 중 혐오 표현이 등장했을 때, 집단원들은 이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지금-여기에서 나누며 이를 집단 내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한 회기로 구성되었으며, 이전 단계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바탕으로 사회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상과 사회적 맥락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자료 분석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과 참여자들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양적 분석과 질적분석을 병행하였다. 첫째, 양적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개입 전과 후에 실험 및 통제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자료는 표본의 크기가 30 미만이므로 모수 검정의 정규분포 가정에 충족하지 않아 비모수 검정통계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비모수 검정은 정규분포 가정과 사전 동질성 가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 및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맨-휘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측정 시기(사전, 사후)에 따른 종속 변인들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윌콕슨 부

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처치 전후 집단 내 차이를 분석하였다.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은 동일 집단의 사전-사후 측정값 차이를 확인하려는 목적에 쓰이므로, 집단 간 동질성(집단 간 특성이 유사한지 여부)을 가정하거나 요구되지 않는다. 모든 양적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의 장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CQR을 사용하여 질적분석을 실시하였다. CQR은 개인의 경험을 최대한 탐색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얻은 정보를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분석을 진행한 연구팀원은 총 4명으로, 평정자 3명과 감수자 1명이었다. Hill과 동료들(2005)이 제안한 CQR 분석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영역설정, 핵심개념 도출,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의 타당성 검토 과정을 모든 연구팀원이 함께 진행하였다. 7명의 인터뷰 내용을 3명의 평정자가 나누어 축어록을 작성하고 내용을 공유하며 논의와 합의를 거쳐 분석을 진행하였다. 감수자는 CQR을 비롯한 질적 연구 경험이 많은 상담전공 교수를 선정하였으며, 감수자는 논의 과정에 참석하지 않고 분석 결과 내용에 대해 감수를 실시하였다. 감수자는 범주 간 중첩을 최소화하고, 범주명을 축약적·추상적인 용어 대신 참여자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구체적 언어로 정리하여 질적연구 본연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감수자의 피드백 내용을 기반으로 평정자들은 다시 합의와 논의를 거쳐 분석 결과물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결 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프로그램 처치 전 종속변인에 대해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수는 실험집단 16명, 통제집단 17명으로 집단별 사례 수가 모수검정의 최소 기준인 30명이 되지 않으므로 비모수 검정인 맨-휘트니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인지적 관점 취하기에서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의 완전한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를 제외한 전체 점수 및 변인 별 하위변인은 사전점수에 있어서 .05 유의수준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사전-사후 집단의 종속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측정시기에 따른 집단별 다양성 수용도, 젠더감수성, 상담자 옹호역량, 공감 점수의 평균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변인	실험집단($n=16$)		통제집단($n=17$)		U	Z
	평균순위	순위합	평균순위	순위합		
다양성 수용도	15.06	241.00	18.82	320.00	105.00	-1.12
젠더감수성	16.38	262.00	17.59	299.00	126.00	-0.36
여성혐오	17.25	276.00	16.76	285.00	132.00	-0.14
적대적성차별	16.22	259.50	17.74	301.50	123.50	-0.45
온정적성차별	18.34	293.50	15.74	267.50	114.50	-0.78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13.50	216.00	20.29	345.00	80.00	-2.03*
성폭력 인식	19.75	316.00	14.41	245.00	92.00	-1.59
상담자 옹호역량	14.25	228.00	19.59	333.00	92.00	-1.59
환경 변화 필요 인식	13.69	219.00	20.12	342.00	83.00	-1.92
내담자 역량강화	13.94	223.00	19.88	338.00	87.00	-1.82
상담자 사회참여	14.69	235.00	19.18	326.00	99.00	-1.33
공감	16.19	259.00	17.76	302.00	123.00	-0.47
인지적 관점 취하기	12.16	194.50	21.56	366.50	58.50	-2.80**
상상하기	15.97	255.50	17.97	2305.50	119.50	-0.60
공감적 관심	16.56	265.00	17.41	296.00	129.00	-0.25
개인적 고통	18.91	302.50	15.21	258.50	105.50	-1.10

주. * $p < .05$, ** $p < .01$

표 6. 집단과 시점에 따른 변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실험집단($n=16$)		통제집단($n=17$)	
	사전 $M(SD)$	사후 $M(SD)$	사전 $M(SD)$	사후 $M(SD)$
다양성 수용도	4.30(0.62)	5.00(0.52)	4.54(0.99)	4.56(0.80)
젠더감수성	2.09(0.60)	1.74(0.52)	2.11(0.53)	1.96(0.61)
여성혐오	1.98(0.81)	1.74(0.53)	1.94(0.77)	1.73(0.66)
적대적성차별	1.89(0.78)	1.57(0.58)	2.07(0.99)	1.96(1.10)
온정적성차별	2.42(0.76)	2.01(0.82)	2.17(0.69)	2.16(0.62)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1.92(0.92)	1.58(0.63)	2.69(1.16)	2.40(1.15)
성폭력 인식	1.99(0.45)	1.60(0.54)	1.75(0.56)	1.59(0.44)
상담자 옹호역량	3.40(0.60)	3.83(0.53)	3.79(0.67)	3.90(0.36)
환경 변화 필요 인식	4.17(0.36)	4.41(0.42)	4.44(0.48)	4.37(0.41)
내담자 역량강화	3.52(0.72)	4.06(0.55)	3.96(0.87)	4.01(0.53)
상담자 사회참여	2.43(1.21)	2.99(1.03)	2.91(1.08)	3.27(0.57)
공감	3.58(0.31)	3.72(0.28)	3.68(0.49)	3.64(0.35)
인지적 관점 취하기	3.61(0.43)	3.96(0.52)	4.10(0.48)	4.05(0.45)
상상하기	3.63(0.57)	3.76(0.66)	3.74(0.88)	3.68(0.75)
공감적 관심	3.76(0.47)	3.91(0.45)	3.85(0.62)	3.91(0.60)
개인적 고통	3.32(0.53)	3.24(0.61)	3.02(1.02)	2.95(0.76)

및 표준편차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실험집단의 경우 각 변인의 평균점수가 모두 사전에 비해 사후시점에서 상승하였고 통제집단의 경우 변인들이 사전에 비해 사후시점에서 미미하게 상승하거나 일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사후검사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각 변인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결측치를 제외하고 실험집단 15명과 통제집단 15명

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고 변인별 결과표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인지적 관점 취하기 하위요인에서 실험과 통제집단이 완전한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은 동일 집단의 사전-사후 측정값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사전 동질성 가정은 요구되지 않는다. 변인별 사전-사후검사 집단 차이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 수용도($Z=-3.19, p<.01$)는 실험집단에서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반면 통제집단의

남혜라 등 / 집단 내 대화의 경험 및 효과에 대한 혼합연구: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시스템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표 7. 사전-사후 Wilcoxon Signed-Rank Test

변인	집단(N)	음의순위 (순위합계)	사례수	양의순위 (순위합계)	사례수	동률 사례수	Z
다양성 수용도	실험(15)	0.00(0.00)	0 ^a	7.00(91.00)	13 ^b	2 ^c	-3.19**
	통제(15)	9.25(55.50)	6 ^a	6.19(49.50)	8 ^b	1 ^c	-0.19
젠더감수성	실험(15)	8.50(110.50)	13 ^a	4.75(9.50)	2 ^b	0 ^c	-2.87**
	통제(15)	7.08(85.00)	12 ^a	11.67(35.00)	3 ^b	0 ^c	-1.42
여성혐오	실험(15)	7.78(70.00)	9 ^a	5.25(21.00)	4 ^b	2 ^c	-1.72
	통제(15)	5.79(40.50)	7 ^a	6.38(25.50)	4 ^b	4 ^c	-0.68
적대적성차별	실험(15)	7.61(68.50)	9 ^a	3.17(9.50)	3 ^b	3 ^c	-2.33*
	통제(15)	6.36(44.50)	7 ^a	5.38(21.50)	4 ^b	4 ^c	-1.04
온정적성차별	실험(15)	7.45(82.00)	11 ^a	4.50(9.00)	2 ^b	2 ^c	-2.56*
	통제(15)	10.08(60.50)	6 ^a	6.61(59.50)	9 ^b	0 ^c	-0.03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실험(15)	5.89(53.00)	9 ^a	6.50(13.00)	2 ^b	4 ^c	-1.81
	통제(15)	7.75(62.00)	8 ^a	5.80(29.00)	5 ^b	2 ^c	-1.16
성폭력 인식	실험(15)	8.85(115.00)	13 ^a	2.50(5.00)	2 ^b	0 ^c	-3.15**
	통제(15)	7.50(82.50)	11 ^a	9.38(37.50)	4 ^b	0 ^c	-1.28
상담자 옹호역량	실험(15)	2.00(6.00)	3 ^a	9.50(114.00)	12 ^b	0 ^c	-3.07**
	통제(15)	8.10(40.50)	5 ^a	7.17(64.50)	9 ^b	1 ^c	-0.75
환경 변화 필요 인식	실험(15)	8.50(8.50)	1 ^a	6.32(69.50)	11 ^b	3 ^c	-2.42*
	통제(15)	5.57(39.00)	7 ^a	5.33(16.00)	3 ^b	5 ^c	-1.18
내담자 역량강화	실험(15)	5.00(10.00)	2 ^a	8.46(110.00)	13 ^b	0 ^c	-2.85**
	통제(15)	7.10(35.50)	5 ^a	3.90(19.50)	5 ^b	5 ^c	-0.82
상담자 사회참여	실험(15)	7.67(23.00)	3 ^a	8.08(97.00)	12 ^b	0 ^c	-2.11*
	통제(15)	4.92(29.50)	6 ^a	9.44(75.50)	8 ^b	1 ^c	-1.45
공감	실험(15)	8.00(32.00)	4 ^a	8.00(88.00)	11 ^b	0 ^c	-1.59
	통제(15)	4.93(34.50)	7 ^a	8.70(43.50)	5 ^b	3 ^c	-0.36
인지적 관점 취하기	실험(15)	7.00(21.00)	3 ^a	7.64(84.00)	11 ^b	1 ^c	-1.98*
	통제(15)	4.88(39.00)	8 ^a	9.75(39.00)	4 ^b	3 ^c	-0.00
상상하기	실험(15)	7.63(30.50)	4 ^a	7.45(74.50)	10 ^b	1 ^c	-1.39
	통제(15)	7.25(43.50)	6 ^a	6.79(47.50)	7 ^b	2 ^c	-0.14
공감적 관심	실험(15)	6.00(18.00)	3 ^a	6.67(60.00)	9 ^b	3 ^c	-1.67
	통제(15)	8.00(32.00)	4 ^a	6.56(59.00)	9 ^b	2 ^c	-0.95
개인적 고통	실험(15)	7.00(56.00)	8 ^a	7.00(35.00)	5 ^b	2 ^c	-0.74
	통제(15)	6.83(41.00)	6 ^a	5.00(25.00)	5 ^b	4 ^c	-0.72

주. a.사후<사전 b.사후>사전 c.사후=사전

다양성 수용도 점수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젠더감수성 총점($Z=-2.87$, $p<.01$)은 실험집단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또한, 그 하위요인인 적대적성차별($Z=-2.33$, $p<.05$), 온정적성차별($Z=-2.56$, $p<.05$), 성폭력인식($Z=-3.15$, $p<.01$)에서도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여성혐오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집단에서는 젠더감수성 및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상담자 옹호역량 총점($Z=-3.07$, $p<.01$)은 실험집단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하위요인인 환경 변화 필요 인식($Z=-2.42$, $p<.05$)과 내담자 역량강화($Z=-2.85$, $p<.01$), 상담자 사회참여($Z=-2.11$, $p<.05$)에서도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통제집단에서는 상담자 옹호역량 및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실험집단에서 공감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관점 취하기($Z=-1.98$, $p<.05$)를 제외한 공감 총점 및 나머지 하위요인은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제집단은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질적분석

본 연구에서는 CQR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5개의 영역과 13개의 범주, 그리고 37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Hill 외(2005)가 제안한 CQR에 따라 참여자 전체 인원인 7명 또는 한 명을 제외한 6명이 제외했을 때 “일반적”, 참여자의 절반 이상인 4~5명이 보고한 범주의 경우 “전형적”, 2~3명이 보고한 경우 “변동적”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영역 1: IntraGD 과정을 통한 경험

본 영역은 참여자들이 IntraGD 과정을 통해 경험한 점에 대한 내용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IntraGD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였으며, 타인 조망이 더욱 생생해지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함

연구 참여자들은 해당 경험을 통해 사고와 가치관을 재점검하게 되고($n=4$, 전형적), 내가 가진 특권을 인식하게 되었다($n=4$, 전형적). 또한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확인하고($n=4$, 전형적) 소수자로서의 입장을 경험하기도 하였다($n=3$, 변동적).

“내 가치에 대해서 조금 재점검하는 그런 좀 새로운 경험이었죠. 내가 스스로 자부했던 어떤 기준이 있었다라면 그 기준을 조금 부끄럽지만 꺼내서 좀 깨워보는 그런 깨져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C>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다문화 관점에서 설명하는 활동 이후)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이렇게 소수의 차별을 받고 있구나 그거를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나는 특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그게 이름 하나 가지고 이런 큰 의미들이 있고 이런 사연들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첫째로 태어났고 저는 남성이고 하는 거에

남혜라 등 / 집단 내 대화의 경험 및 효과에 대한 혼합연구: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시스템더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표 8. 영역, 범주 및 하위 범주

영역	범주	하위범주	빈도
IntraGD 과정을 통한 경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함	사고와 가치관을 재점검함	전형적(4)
		내가 가진 특권을 인식함	전형적(4)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확인함	전형적(4)
		소수자로서의 입장을 경험함	변동적(3)
	타인 조망이 더욱 생생해짐	타인의 경험을 듣고 통찰이 깊어짐	전형적(4)
		소수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됨	변동적(3)
	다양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느낌	복합적인 감정을 느낌	변동적(2)
		참여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낌	변동적(3)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견을 표현하는데 불안감과 거부감을 느낌	전형적(4)
		의견을 표현했을 때 거부 당하거나 공감받지 못할까봐 두렵고 위축됨	변동적(3)
IntraGD에 도움이 된 점	IntraGD의 활동/내용	IntraGD 과정에서 누군가가 상처받을까봐 불편함	전형적(4)
		자기반영 일지를 통해 경험을 충분히 소화시킴	전형적(5)
		평소 꺼내기 어려운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고 나누게 됨	전형적(4)
	촉진자가 집단 역동을 다루는 개입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집단 보편성을 경험함	변동적(2)
		소그룹 활동을 통해 분위기가 편안해짐	일반적(6)
		집단 분위기를 조율하고 대화를 활성화시키는 촉진자 개입	변동적(3)
IntraGD를 어렵게 했던 점	집단의 구성과 진행방식	회기 시간이 짧고 빠르게 진행되어 주제를 충분히 나누지 못함	전형적(5)
		대집단 활동에서 소그룹에서 나눈 내용이 반복되고 편하게 발언하기가 어려움	변동적(3)
		특정 정체성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소수자로서의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움	변동적(2)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사전준비와 안내가 부족함	변동적(3)
		수업의 일환으로 비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함	변동적(3)
		다중관계로 인해 편하게 참여하지 못함	변동적(2)
	개인 내적 요인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반하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움	변동적(3)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이 두려워 의견을 표현하는데 주저함	변동적(3)
	한국의 사회 문화적 요인	소집단 활동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나 다수의 의견에 이끌려 동조하게 됨	변동적(2)
수정 · 보완할 점	내용적 측면	실생활과 밀접한 공감되는 주제들을 나눔	변동적(2)
	형식적 측면	주제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	전형적(5)
		사전에 집단 활동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변동적(3)
		집단 활동에 적절한 인원수 고려	변동적(2)
		대화를 활성화시키고 집단 분위기를 조율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	변동적(3)
		상황에 적절한 다양한 형태의 집단 운영	변동적(2)
IntraGD를 통한 긍정적인 변화	소수자 이해 및 옹호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짐	변동적(3)
		소수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게 됨	변동적(2)
		소수자 문제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게 됨	변동적(3)
	자신에 대한 자각	누리고 있는 많은 특권들을 인식하게 됨	변동적(3)
		편협했던 자신의 사고를 인식하게 됨	전형적(4)
	소수자로서 자기표현 능력의 강화	소수자로서의 위축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됨	변동적(2)

굉장히 대조적으로 좀 비교가 되면서 좀 어떤 적지 않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좀 아무래도 이제 가부장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나 이런 거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참여자 B>

“이제 다른 참여자 다른 이제 선생님들의 그런 성숙한 의견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지금까지 좀 차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참여자 E>

“그냥 내가 소수자들이 겪는 억압, 차별들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하고 막 연하게 생각만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실제로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D>

타인 조망이 더욱 생생해짐

참여자들은 IntraGD를 통해 타인의 경험을 듣고 통찰이 깊어지거나($n=4$, 전형적), 소수자의 입장을 이해($n=3$, 변동적)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약간 성숙한 의견 있잖아요. 진짜 그 성소수자라든지 그런 사회적 약자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발언을 듣고 많이 놀랐어요. 진짜 저런 사람들이 상담자구나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내가 진짜 이렇게 유치한 생각 유치한 그런 혐오적인 생각을 편파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정말 절실히 깨달았어요.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 조금 저도 이제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 E>

“한 가지 질문인데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신기했었고 트랜스젠더면 그 성별 자체 성별란 있잖아요. 남녀 란 밖에 없는데 꼭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성별이 안 바꾼 사람들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등록증 꺼내는 건 저희한테는 그냥 일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꺼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꺼낼 때마다 거의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그때부터 조금 더 이해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참여자 A>

다양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느낌

참여자들은 양가감정과 같은 복합적인 감정($n=2$, 변동적)과 함께 참여에 대한 재미와 흥미($n=3$, 변동적)를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견을 표현하는데 불안감과 거부감($n=4$, 전형적)이나 의견을 표현했을 때 거부 당하거나 공감받지 못할까봐 두렵고 위축되는 감정($n=3$, 변동적), IntraGD 과정을 통해 누군가가 상처 받을까봐 불편함($n=4$, 전형적)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싶다. 나는 못 가진 거 더 많은데 근데 그때는 그래도 나는 이 정도를 가졌고 꽤 괜찮은 거네 약간 자괴감도 느끼면서 만족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엄청 자연스럽게 얻어진 건데 누군가한테는 그렇지 않다. 약간 자괴감 그냥 좀 guilty한 느낌이 들었어요.”<참여자 A>

“주제 자체는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에서 흔히 다룰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루는 자체가 새롭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참여자 E>

“상처받기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속하지 못했을 때 내가 꺼낸 얘기가 조금 그 사람들의 다른 어떤 인식과 다를 때 좀 거부되거나 그렇게 터부시 되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당화되고 또 내가 뭔가 또다시 그런 거를 재경험해야 되는 소수자 경험을 피해 경험을 재경험해야 되는 그게 좀 두렵지 않나...”<참여자 C>

“아무래도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심코 하는 말이 IntraGD더라도 상대방에게 뭔가 불편감을 주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조금 많이 됐던 것 같아요.”<참여자 G>

영역 2: IntraGD에 도움이 된 점

본 영역에서는 집단 대화에 도움이 된 점을 다룬 것으로 참여자들은 IntraGD의 활동 및 내용과 촉진자가 집단 역동을 다뤘던 개입에 대해 보고하였다.

IntraGD의 활동/내용

절반 이상의 참여자들은 자기반영 일지를 통해 IntraGD에서의 경험을 충분히 소화시키고($n=5$, 전형적), 평소 꺼내기 어려운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고 나누게 되었다고 하였다($n=4$, 전형적).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집단 보편성을 경험하였다고($n=2$, 변동적) 보고하였다.

“저는 반영 일지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나 또 놓친 부분들은 일지를 쓰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 얘기를 나에게 어떻게 들려주고 그런 걸 다 일지를 쓰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았고 지금도 사실 그때 경험한 거는 가끔 생각날 때도 있고요.”<참여자 A>

“여러 주제들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 또 조금 꺼내기가 어려웠던 그냥 조금 이렇게 한권에 이렇게 좀 모르는 채하고 싶었던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다룰 수 있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느낀 그런 주제에 대한 나 나는 그런 주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또 다른 집단원들은 어떻게 경험을 하고 어떻게 보고 있나 그리고 그 집단 안에서의 또 나는 그들의 어떤 경험들을 들으면서 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저는 아주 신선하기도 하고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D>

“이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같은 공감을 하고 있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간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고 또 이런 부분들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좋았던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고 그런데 이제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다문화에 대해서 심리 공부하고 상담하는 사람들도 아직 이렇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구나 나만 이렇게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언뜻 떠오르는 예시인 것 같아요.”<참여자 B>

촉진자가 집단 역동을 다루는 개입

참여자들의 대다수가 소그룹 활동을 통해 분위기가 편안해짐을 경험하였으며($n=6$, 일반적), 집단 분위기를 조율하고 대화를 활성화시키는 촉진자의 개입($n=3$, 변동적) 또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저는 일단 그냥 소수 그룹으로 일단 생각을 좀 더 편안하게 나눌 수 있었을 때 더 서로 영향력을 좀 많이 받고 또 내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들을 시각들을 얘기를 해줄 때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C>

“어떨 때는 조금 예민한 얘기를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촉진자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잘 이끌어가고 있는지 또는 만약에 누군가에게 상처 되는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이 적절한 타이밍에 커트를 해줄 건지 보호를 해줄 건

지 만약에 잘했을 때는 저도 그걸 보고 믿음이 생겨서 나도 해도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참여자 A>

영역 3: IntraGD를 어렵게 했던 점

본 영역에서는 참여자들이 IntraGD가 어렵었던 점에 대해 보고한 내용들을 정리하였으며, 집단의 구성과 진행방식, 개인 내적 요인, 한국의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집단의 구성과 진행방식

참여자들은 IntraGD의 회기 시간이 짧고 빠르게 진행되어 주제를 충분히 나누지 못하며($n=5$, 전형적), 대집단 활동에서 소그룹에서 나누는 내용이 반복되고 편하게 발언하기가 어려운 점($n=3$, 변동적), 집단인원이 많아 소통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n=3$, 변동적), 특정 정체성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소수자로서의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운 점($n=3$, 변동적)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IntraGD가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면서 사전준비와 안내가 부족한 점($n=3$, 변동적), 비자발적인 참여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 점($n=3$, 변동적), 다중관계로 인해 편하게 참여하지 못한 점($n=2$, 변동적)을 제시하였다.

“저는 한 회기마다 시간을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뭔가 충분히 얘기하지 못한 느낌이 늘 있었어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얘기를 하다 보니 되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참여자 A>

“대집단 분위기가 약간 약간 엄격하다고 해야 되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작용이 없잖아요.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지 않다 보니까 소집단은 그때 과감한 발언 이런 했을 때 진짜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더라고요....진짜 대집단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수업 같아요.”<참여자 E>

“같은 수업을 다 들었지만 저희 △△학과 학생은 두 명 있고 나머지는 다 ○○학과 학생들이다 보니까 저는 또 이렇게 약간 어쨌든 그룹에서 새롭게 들어가서...확실히 △△학과 학생이 두 명이고 절대 다수가 이제 ○○학과인 상황이었죠”<참여자 C>

“수업 계획서에 내가 이 수업을 선택하기 전에 이미 그런 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었다면 굵은 글씨로 된 어떤 포인트를 뒤서 여기서는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미리 뭔가 얘기를 하면은 그걸 거기에서 이제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참여자 F>

“초반에는 분명히 좀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뭔가 그런 거죠.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의 내용은 굉장히 자유롭고 그런 이슈나 토픽을 다루지만 어쨌든 수업이 진행되니까 강제로 진행이 되잖아요.”<참여자 G>

“이중 관계 그러니까 지인들 같은 전공 같은 학과 볼 사람들에게 좀 특히 친

한 동기들 막 이러면 아무래도 그게 신경 쓰였고”<참여자 B>

개인 내적 요인

참여자들은 IntraGD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반하는 민감한 주제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n=3$, 변동적),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이 두려워 의견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n=3$, 변동적).

“나의 어두운 내면을 드러내고 싶진 않았다고 그럴 때는 좀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면 나도 어두운 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 아기가 트랜스젠더라면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지를 해주지 못할 거라는 것도 쉽게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때도 막 30분 동안 그냥 혼자 있고 얘기를 해야되나 난 못할 것 같은데 이려고 있었으니까 그때도 두려움인 것 같아요. 나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 <참여자 A>

“성 정체성이라거나 아니면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하면은 도덕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면 사실 차별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떤 하나의 굉장히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뭔가 좀 낙인을 찍힐까 이런 게 좀 많이 두려웠어요.” <참여자 E>

한국의 사회 문화적 요인

참여자 중 일부는 소집단 활동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나 다수의 의견에 이끌려 동조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n=2$, 변동적).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이끌려가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동감을 하거나 하면서 그냥 전체 의견이 돼 버린 듯한 때가 있는데...” <참여자 B>

영역 4: IntraGD의 수정·보완할 점

본 영역에서는 참여자들이 IntraGD에서의 수정 및 보완점에 대해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내용적 측면

참여자들은 실생활과 밀접한 공감되는 주제들을 나누기($n=2$, 변동적)를 희망하였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조금 더 민감한 주제를 다뤘다면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참여자 E>

형식적 측면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형식적 측면에서 주제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n=5$, 일반적)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집단 활동에 적절한 인원수 고려하는 것($n=2$, 변동적), 사전에 집단 활동에 대한 유의사항에 안내하고($n=2$, 변동적), 대화를 활성화시키고 집단 분위기를 조율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n=3$, 변동적)과 상황에 적절한 다양한 형태의 집단 운영에 대한 필요성($n=2$, 변동적)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저는 한 회기마다 시간을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인원이 줄면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충분히 얘기하지 못한 느낌이 늘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주제가 정했으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얘기를 하다 보니 되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핵심 부분은 결국 얘기를 하지 못한 적도 많았어요.” <참여자 A>

“촉진자가 이제 brave space에서 약간 danger zone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역동을 조금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조금 동조를 깨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여자 C>

“처음에 소집단 초기나 중기까지 소집단하고 전체를 섞을 때 소집단 조금 늘려서 하고 소집단하고 이제 뒤에 전체 나눌 때는 다른 의견이 뭐가 있었는지만 짧게 그냥 나누고 다시 또 소집단의 활동을 늘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좀 많이 이제 좀 적용되는 후기에는 소집단은 좀 줄이고 전체로 할 때는 그런 핵심 질문으로 전체 의견을 다 한 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참여자 B>

영역 5: IntraGD를 통한 긍정적인 변화

본 영역에서는 참여자들이 IntraGD를 통해 변화된 긍정적인 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IntraGD를 통해 소수자를 이해하고 옹호하게 되며, 자신에 대해 자각하게 되고, 소수자로서 자기표현 능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소수자 이해 및 옹호

참여자들은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진 점($n=3$, 변동적), 소수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 점($n=2$, 변동적), 소수자 문제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게 된 점($n=3$, 변동적)을 보고하였다.

“직접 행동으로 옮겨진 것들은 이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을 지냈고 아직 그런 잘 모르고 같이 그렇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소수의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를 좀 했었어요. 설득을 좀 시키고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거에 너무 동조해서 우리가 이제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좀 커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소극적이었던다가 나중에는 좀 적극적이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참여자 B>

“제가 이번 집단을 대화할 때 문화적으로는 소수자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소수자의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 대화할 때 네 그래서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목소리 내기도 쉽지 않았어요.” <참여자 A>

“상담할 때든 어떤 다른 사람을 이해

할 때도 꼭 상담 장면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 같은 것들 그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F>

자신에 대한 자각

참여자들은 스스로가 누리고 있는 많은 특권들을 인식($n=3$, 변동적)하게 되었으며, 편협했던 자신의 사고를 인식($n=4$, 일반적)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뭔가 당연한 게 세상에 없다. 그리고 나는 소수자이기도 하고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특권 가진 건 정말 당연하게 여기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또 나에게 또 집중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 <참여자 F>

“당연히 이제 잘 몰랐으니까 내 주변 일이 아니고 그냥 아주 멀리 떨어진 어떤 소수의 일이다. 또는 이제 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내 주변에는 좀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좀 이런 인식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참여자 B>

소수자로서 자기표현 능력의 강화

참여자들은 소수자를 이해하고 옹호하거나 자신에 대한 자각하게 된 점을 넘어서 소수자로서 자기표현 능력이 강화($n=3$, 변동적)되었다고 지각하였다.

“어떤 그런 스킴십이나 성적인 요구에

서도 훨씬 더 조금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좀 내가 좀 수동적이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거나 내가 원치 않는데도 그냥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 있어도 조금 당당하게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좀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참여자 C>

논 의

본 연구는 IntraGD가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시스템다 대학원생들의 다문화 역량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탐구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질적 및 양적 분석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인 “IntraGD에 참여한 실험집단에서 다양성 수용도, 젠더 감수성, 상담자 옹호역량, 공감 능력 등에서 사전·사후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면, IntraGD 참여자들은 사전 대비 사후 검사에서 다양성 수용도, 젠더 감수성, 상담자 옹호역량 등 여러 측면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질적분석을 통해서도 자기 성찰, 타인 조망, 소수자 이해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양적 분석 결과, 다양성 수용도와 젠더 감수성(적대적·온정적 성차별, 성폭력 인식)에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난 것은, 동일한 집단 정체성을 공유하는 참여자들 간에 안전한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자신의 편견과 특권을 개방적으로 성찰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Crider, 2015). 특히 질적분석에서 참여자들은 스스로 당연시해 왔던 가치관과 사고

방식을 “다시 꺼내보고 깨뜨려 보는 경험”이라 표현하면서, 그 과정에서 기존에 인지하지 못했던 내면화된 편견을 자각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IntraGD가 내부적 성찰에 용이하다는 주장(Rothman, 2014; Sternberg et al., 2018)을 지지하는 결과다. 다만 여성혐오(예, “여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나 성적 지향에 대한 대화(예, “나는 한국에서 동성혼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었으나 주요한 주제로 깊게 다뤄지지 않아, 이와 관련된 즉각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질적분석에서 언급되었듯이 시간이 제한적이라 TGNB 이슈에 집중하려다보니 젠더 감수성 전반에 대한 대화는 변화를 보일 만큼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공감에서는 하위요인 중에서 인지적 관점 취하기만이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인지적 관점 취하기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통계적으로 동질하지 않았던 것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무작위 할당 없이 특정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 통계인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사용하였는데, 집단 내 사전-사후 변화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집단에서 IntraGD 개입 후 인지적 관점 취하기 점수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IntraGD가 실험집단 구성원들의 인지적 관점 취하기를 높이는 데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다. IntraGD의 활동이나 대화가 주로 사고와 성찰을 요구하는 구조였기에 타인의 경험과 관점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IntraGD의 특성상 실제 TGNB 참여자의 경험

을 듣고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부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서적 공감 혹은 감정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짧은 기간 동안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인지적 수준에서의 이해와 수용이 먼저 이루어지더라도, 정서적 차원의 공감은 더 많은 시간과 반복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Chang, 2010).

상담자 옹호역량 역시 유의하게 향상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IntraGD 과정이 환경 변화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내담자 역량강화와 상담자 사회참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Dessel & Rogge, 2008). 이러한 변화는 참여자들이 실제 상담 장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소수자 인권 이슈를 ‘남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게 된 데 기인한다. 질적 분석에서 확인된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졌다”거나 “소수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라는 진술은 실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연구 결과와 보고 되었는데 Moon(2024)은 InterGD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상담자 10명을 대상으로 다양성과 다문화 역량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상담에서 문화적 민감성이 증가하였고, 사회정의와 옹호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IntraGD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경험한 참여 경험, 대화 과정에서의 촉진·방해 요인, 긍정적·부정적 정서, 변화 인식 등은 어떠한 범주로 분류되며,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적분석 결과, IntraGD 과정이 참여자들에게 자기 성찰과 타인 조망을 제공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내가 가진 특

권을 인식하게 되었다”거나 “편협했던 사고를 깨닫게 되었다”와 같은 진술은 참여자들이 주류 내러티브에서 벗어나 자신과 소수자를 새롭게 바라보게 됐음을 보여준다. 이는 IntraGD가 내집단 내 편향을 안전한 분위기에서 비판적으로 탐색하기에 적합하다는 연구들(Sanders & Mahalingam, 2012; Sternberg et al., 2018)을 지지한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시스템더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발달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ntraGD를 어렵게 했던 요인으로, 회기 시간 부족, 대집단 전환 시 소집단 내용의 반복, 특정 정체성이 다수를 이루는 상황에서 소수자의 발언 어려움, 수업 일화로 비자발적으로 참여한 탓에 안전감을 느끼지 못한 점, 다중관계로 인해 편하게 발언하기가 곤란했던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한된 회기 시간 안에서 참여자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소집단 운영과, 소집단과 대집단을 운영할 때 유기적 연결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IntraGD 초기(1, 2단계)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참여형 활동을 최소로 운영하면서 3단계 핫토픽에서 소집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유로운 소통을 촉진하고, 대집단으로 모였을 때는 소집단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기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필요하다.

Tittler와 Wade(2019) 연구에서는 대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집단의 구성과 대화 방식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구조적인 대화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반구조화된 방식을 채택했고, 그 결과 참여자들의 심층적 소통을 돕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은 관계지향적 문화

(Chang, 2010)와 높은 권력 거리(Dai et al., 2022; Merkin, 2006)로 특징지어지는데,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여자가 자발적 동기와 안전감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준비 단계를 마련하되, 참여자들이 대화 흐름과 의제를 자율적으로 주도하도록 여지를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한 주 동안 반영 일지 작성을 격려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자기 반영 과정을 통해 개인적 통찰과 집단 경험을 연계하는 것이 대화 학습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과 일맥상통한다(Ford, 2012).

한국 사회에서는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고 관계 유지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장애경 외, 2022; Chang, 2010),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기보다는 회피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은 솔직한 경험 개진이 필수적인 대화형 프로그램에서 대화의 장벽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동질적 집단이라는 안전한 분위기가 자기검열을 완화하고 솔직한 소통 촉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내집단 안에서 신뢰감을 쌓은 뒤 TGNB 이슈를 비교적 자유롭게 논의하며 편견이나 특권을 재검점할 수 있었다. 특히, 반구조화된 운영 방식은 집단 참여자들이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자극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높은 응집력으로 인해 비판적 의견 개진이 어려워지거나, 특정 의견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도 가능하다. 예컨대 Asch의 동조 실험에서는, 참여자들이 명백히 틀린 다수 의견임을 알고 있음에도 집단 압력 탓에 동조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집단 응집력과 동질성이 높을수록,

구성원들은 갈등이나 반대 의견을 제기하기보다 주류 의견에 동조하거나 비판적 의견 개진을 자제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높은 응집력으로 형성된 안전한 분위기가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다준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집단 내 다양성과 비판적 사고가 충분히 허용되는 집단 분위기를 형성하는 촉진 기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IntraGD는 단독으로도 한국적 맥락에서 상담자 옹호 역량 증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나아가 InterGD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계중심 문화에서 공개적 비판이나 자아 노출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먼저 내집단 내에서 충분한 자기 성찰과 의견 교환을 경험함으로써 대화 역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후 InterGD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보다 능동적이고 개방적으로 다룰 토대를 마련해 주며, 조직이나 지역사회에서 InterGD를 도입하기 전 미리 IntraGD를 적용한다면 한국적 맥락에서 흔히 발생하는 체면·위계·갈등 회피 등의 장벽을 완화하고 대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기존 InterGD에서 밝혀진 성과 요인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가?”라는 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경 외(2022) 연구는 InterGD의 긍정적 효과를 탐색한 사례로, 서로 다른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참여자들이 갈등 상황에서 자기인식과 타인 존중 능력, 비판적 의식을 어떻게 고취해 나가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InterGD에 참여한 집단은 외집단과의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실생활 경험을 공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점 수용과 특권

인식이 확장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상이한 정체성을 가진 참여자들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긴장감을 느끼고 평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 개방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장애경 외(2022)의 InterGD와 본 연구의 IntraGD 모두 편견 감소와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다루는 갈등 축과 경험의 초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InterGD에서는 상이한 집단 간에 뚜렷한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외집단으로 향하는 경향이 컸다. 예컨대 타집단으로부터 공감을 받고, 타인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정당화 받으려는 내용이 주로 등장했다. 반면, IntraGD에서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내집단이라는 공통 배경을 공유하면서도, TGNB 이슈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핵심이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자신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사고와 가치관을 재검점하며, 사회적 정체성 발달을 이루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InterGD의 경우,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참여자들이 맞닥뜨리는 과정에서 갈등과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비판이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부정적 감정 등을 호소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났다. 반면 IntraGD에서는 “같은 집단 내부에서 소수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대화를 나누며, 두려움·위축감 외에도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보고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즉, 동질적 집단에서 함께한 경험이 긍정적 감정을 낳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장애경 외(2022)의 InterGD와 본 연구의 IntraGD 모두에서 촉진자의 역할은 중요한 변화 요인으로 나타났다. 촉진자는 대화의 안전 지대를 형성하고, 공감적 경청을 통해 참여자

들이 자기 개방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는 대화 과정에서의 긍정적 경험을 증진시켜,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InterGD와 IntraGD 모두 참여자들에게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이후 대화나 의사소통에서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적 맥락에서 반구조화된 IntraGD가 다양성 수용도와 젠더 감수성, 상담자 옹호역량을 향상하고, 부분적으로나마 공감의 인지적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이는 서구 중심의 기존 연구를 국내 사회적 갈등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했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질적분석을 통해 참여자들이 경험한 구체적인 변화 양상과 어려움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IntraGD 프로그램 설계 시 필요한 보완점을 제안할 수 있었다. 셋째, InterGD에서 보고된 성과, 방해 요인을 비교함으로써, IntraGD가 외집단 시선 없이 자기 성찰을 심화하고, 이후 InterGD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될 뿐만 아니라 IntraGD만으로도 상담자의 다문화 역량 증진에 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설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연구 표본이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으로 국한되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상담 현장의 다양한 연령 및 성별을 가진 상담자를 대상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 상담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수업에서 얻은 지식과 IntraGD의 효과성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

서 상담자의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연구자가 해당 교과목의 교수자이자 촉진자였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비록 심층 면접은 모든 평가가 종료된 이후 실시했으나, 참여자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연구 개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공감의 정서적 측면이나 젠더 감수성, 특히 여성 및 성적 지향 이슈에 대한 감수성 변화 등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핫토픽 세션을 총 2회기로 구성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개입 기간을 확대하여 4회기 이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개입의 효과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이수 이후 지속적인 추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종료 시 소수자 옹호 및 사회 정의 행동 계획을 보고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 집단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수행하여 다문화 수용성과 공감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행동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표본 수가 적어 비모수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 수를 늘려 보다 견고한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험집단·통제집단·비교집단을 구성하여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IntraGD의 효과성을 더욱 신뢰성 있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IntraGD가 단순한 시간 경과나 연구 참여 효과를 넘어, 기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고유한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보다 엄밀히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는 IntraGD의 효과성을 보다 정교하게 검증하고, 이를 상담자 교육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20).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 김경령, 서은희 (2020). 젠더 감수성 측정을 위한 구인 탐색 및 척도 개발. *교육연구논총*, 41(4), 63-90.
- 김은하, 신윤정, 이지연 (2019). 상담전공대학원생을 위한 다문화 상담 교과 과정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321-1364.
- 남목민, 이도형, 이준행, 연구진 (2023). 상담심리 전공 대학원생들의 다문화 상담 수업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2), 293-328.
- 박성희 (1997).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문음사*.
- 박정은 (2013).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불편감이 상담자 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동성애 내담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석, 이정림, 강재희, 차주환 (2007). 상담자의 동성애 혐오 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13-237.
- 유하은, 권경인 (2020). 성소수자(LGBT) 상담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간이해*, 41(1), 91-115.
- 윤효정, 김지선, 이가희, 신윤정 (2023). 트랜스

- 젠더 및 젠더 논바이너리(TGNB)의 차별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1), 251-291.
- 은지용, 이윤정 (2021). 미디어 비평에 기반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 *다문화교육연구*, 14(3), 143-172.
- 이주영, 윤은희, 이아라 (2020). 한국 상담자의 LGBT 내담자 상담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21(2), 339-359.
- 이효선 (2014). 대학생의 다양성 수용도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협동학습역량과 폐기학습역량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은미 (2017). 한국 상담자를 위한 사회정의 옹호역량 척도(SJACS-K)의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8(6), 17-36.
- 임은미 (2020). 한국 상담자의 수퍼비전을 위한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수퍼비전의 통합방안 탐색. *상담학연구*, 21(5), 27-46.
- 장애경, 정지선, 김지선, 신윤정 (2022).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 긍정적 참여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프로그램 효과 요인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5(2), 83-113.
- 정지선 (2020). 다문화 및 사회정의 상담을 위한 상담자 교육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225-248.
- 정지선, 신윤정, 안진아, 이은설, 이지연 (2023). 집단 간 대화 촉진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4), 1655-1685.
- 정지선, 안진아 (2023). 다문화 교육 방법의 효과성 연구: PBL과 집단 간 대화(IGD)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5), 229-250.
- 정지영, 임은미 (2021). 수퍼바이저의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수퍼비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22(6), 479-506.
- 최가희 (2018). 사회정의와 상담심리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249-271.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Addison-Wesley.
- Bingham, R. P., Porché-Burke, L., James, S., Sue, D. W., & Vasquez, M. J. T. (2002). President's Initiative on race and the challenge for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7(2), 76-87.
- Bohm, D. (1996). *On dialogue* (L. Nichol, Ed.). Routledge.
- Chang, S. (2010). A cross-cultural comparative study on interpersonal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cross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4(4), 1-17.
- Crider, S. E. (2015). *Race is a raradox: How students make sense of structure and agency in inter-and intra-group dialogue*. The University of Michigan Doctoral dissertation.
- Dai, Y., Li, H., Xie, W., & Deng, T. (2022). Power distance belief and workplace communication: The mediating role of fear of autho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5), 2932.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101.
- Dessel, A., & Rogge, M. E. (2008). Evaluation of intergroup dialogue: A review of the empirical

- literature. *Conflict Resolution Quarterly*, 26(2), 199-238.
- Dessel, A., Rogge, M. E., & Garlington, S. B. (2006). Using intergroup dialogue to promote social justice and change. *Social Work*, 51(4), 303-315.
- DiAngelo, R. (2022). *White fragility: Why understanding racism can be so hard for white people (Adapted for young adults)*. Beacon Press.
- Dovidio, J. F., Gaertner, S. L., & Kawakami, K. (2003). Intergroup contac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6(1), 5-21.
- Ford, K. A. (2012). Shifting White ideological scripts: The educational benefits of inter-and intraracial curricular dialogues on the experiences of Whit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5(3), 138-158.
- Frantell, K. A., Miles, J. R., Muller, J. T., & Robinson, L. M. (2018). A typology of critical incidents in intergroup dialogue: Perspectives of facilitators-in-training.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2(3), 156-171.
- Frantell, K. A., Miles, J. R., & Ruwe, A. M. (2019). Intergroup dialogue: A review of recent empirical research and it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Small Group Research*, 50(5), 654-695.
- Gurin, P., Nagda, B. A., & Zúñiga, X. (2013). *Dialogue across difference: Practice, theory, and research on intergroup dialogue*. Russell Sage Foundation.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James-Gallaway, C. D., & James-Gallaway, A. D. (2023). Structural acuity: Black women undergraduate students in cross-racial intergroup dialogues. *Journal of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1-12.
- Joslin, J. Y., Dessel, A. B., & Woodford, M. R. (2016). Social work students' experiences in a Christianity and sexual minority intergroup dialogue. *Social Work Education*, 35(5), 547-559.
- Madden, M. (2015). Social class dialogues and the fostering of class consciousness. *Equity & Excellence in Education*, 48(4), 571-588.
- Maxwell, K., & Chesler, M. (2019). White student comfort and conflict in experiential racial dialogues. *Journal of Experiential Education*, 42(3), 249-263.
- Merkin, R. S. (2006). Uncertainty avoidance and facework: A test of the Hofstede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2), 213-228.
- Moon, J. (2024). Fostering diversity: The role of intergroup contact in counselo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27(1), 131-143.
- Nagda, B. A., & Gurin, P. (2013). The practice of intergroup dialogue. In P. Gurin, B. A. Nagda & X. E. Zúñiga (Eds.), *Dialogue across difference: Practice, theory, and research on intergroup dialogue* (pp. 32-73). Russell Sage

- Foundation.
- Pascarella, E. T., Edison, M., Nora, A., Hagedorn, L. S., & Terenzini, P. T. (1996). Influences on students' openness to diversity and challenge in the first year of college.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7(2), 174-195.
- President's Initiative on Race (PIoR). (1998). *One America in the 21st Century: Forging a new future*. Government Printing Office.
- Rothman, J. (2014). From intragroup conflict to intergroup cooperation. In L. M. Woehrle (Eds.), *Intersectionality and Social Change* (pp. 107-123).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Sanders, M. R., & Mahalingam, R. (2012). Under the radar: The role of invisible discourse in understanding class based privilege. *Journal of Social Issues*, 68(1), 112-127.
- Schmidt, C. K., Earnest, D. R., & Miles, J. R. (2020). Expanding the reach of intergroup dialogue: A quasi-experimental study of two teaching methods for undergraduate multicultural courses. *Journal of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13(3), 264-273.
- Staub, E. (2013). Building a peaceful society: Origins, prevention, and reconciliation after genocide and other group violence. *American Psychologist*, 68(7), 576-589.
- Sternberg, M., Litvak Hirsch, T., & Sagy, S. (2018). "Nobody ever told us": The contribution of intragroup dialogue to reflexive learning about violent conflict.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24(2), 127-138.
- Sue, D. W. (2013). Race talk: The psychology of racial dialogues. *American Psychologist*, 68(8), 663-672.
- Tatum, B. (2003). *Why are all the Black kids sitting together in the cafeteria?*. Hachette.
- Tatum, B. D. (2019). Together and alone? The challenge of talking about racism on campus. *Dædalus*, 148(4), 79-93.
- Tittler, M. V., & Wade, N. G. (2019). Engaging White participants in racial dialogues: Group composition and dialogue structure.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3(2), 75-90.
- Turner, J. C., Brown, R. J., & Tajfel, H. (1979). Social comparison and group interest in ingroup favouritis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2), 187-204.
- Zúñiga, X. (2007). Intergroup dialogue in higher education: Meaningful learning about social justice. *Ashe Higher Education Report*, 32(4), 1-128.
- Zúñiga, X., Naagda, B. R. A., & Sevig, T. D. (2002). Intergroup dialogues: An educational model for cultivating engagement across differences. *Equity & Excellence in Education*, 35(1), 7

원 고 접 수 일 : 2025. 01. 06
수정원고접수일 : 2025. 03. 25
게 재 결 정 일 : 2025. 04. 11

A Mixed-Methods Study on the Experiences and Effects of Intragroup Dialogue: Focusing on Cisgender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unseling Psychology

Hyera Nam¹⁾ Sujung Choi²⁾ Jina Ahn³⁾ Jisun Jeong⁴⁾

¹⁾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 Graduate student

²⁾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 Graduate student

³⁾K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 Associate professor

⁴⁾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 Assistant profess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semi-structured Intragroup Dialogue (IntraGD) program, which addresses prejudice, privilege, and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 Fifteen cisgender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in seven sessions focusing on transgender and gender non-binary (TGNB) issues, while 15 control participants received no intervention. The study measured changes in openness to diversity, gender sensitivity, counselor advocacy competence, and empathy. Employ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for in-depth interviews, results indicat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openness to diversity, gender sensitivity, and advocacy competence, as well as enhanced cognitive empathy. Participants reported increased self-reflection, perspective-taking, awareness of prejudice and privilege, and advocacy for marginalized individual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raGD can bolster counselor advocacy competence as a standalone intervention and serve as preparatory training for InterGD in the Korean context. The study discusses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highlighting IntraGD's value for diversity education and counseling. It holds promise for broader applications.

Keywords : *intragroup dialogue, diversity, cisgender, TGNB, counselor advocacy competency*